

『戰國策』版本叙錄

金 鐘 聲*

目 次

- 一. 序 論
- 二. 本 論
 - 1. 曾鞏의 版本整理
 - 2. 姚宏의 版本整理
 - 3. 鮑彪의 版本整理
 - 4. 吳師道의 版本整理
 - 5. 黃丕烈的 版本整理
- 三. 結 論

一. 序 論

『戰國策』은 漢代 劉向이 기존의 자료를 根據로 하여 編纂하였다. 그러나 劉向이 자료로 채택한 “國策”, “國事”, “短長”, “事語”, “長書”, “修書” 등은 현재까지 確實한 著者, 또는 著作年代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宮中秘閣에 보관되어 오던것을 劉向이 錯亂된 부분과 重複된 부분을 정리·삭제하여, 각 나라별로 整理하였는데, 이 모두가 “戰國時 游士들이 소속된 국가를 돕기 위한 策略과 謀略이다 (戰國時游士輔所用之國,爲之策謀).”라고하면서 편찬 후 『戰國策』이라 命名한 것이다. 이는 모두 十二國 三十三篇으로써, 각 나라별로는 東·西周 各一篇, 秦 五篇, 齊 六篇, 楚 四篇, 趙 四篇, 魏 四篇, 韓 三篇, 燕 三篇, 中山 一篇, 宋·衛는 합하여 一篇이다. 기록된 내용의 기간은 春秋 이후부터 “楚漢之起”까지 모두 二百四十五年間 일어난 일들을 담고있다.¹⁾

오늘날 『戰國策』문장과 『史記』의 문장을 對照 比較해 볼 때, 『史記』의 저자인

* 人文大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司馬遷도 劉向이 編纂時 사용한 資料들을 참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지 『史記』에서는 司馬遷이 史家로서의 개인 의견을 가미함으로써 현존의 『戰國策』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²⁾

중국 역사에 있어 가장 풍부한 文化와 思想이 꽃피웠던 周代를 西周와 東周로 나누고 東周를 또다시 春秋와 戰國시대로 나누는데, 이는 바로 『春秋』와 『戰國策』의 두 書名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戰國시대의 끝은 秦始皇이 天下를 統一한 紀元前 221年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始作年度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韓·趙·魏 三家가 晉나라를 分割하여 周天子로부터 諸侯로 각각 認定받은 해인 紀元前 403年(周威烈王 23年)을 채택하고 있다.

劉向이 『戰國策』을 편찬한 후 清代까지 전해져 내려온 과정을 보면, 後漢末 高誘가 劉向의 古本에 주석을 가했으나 宋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散失이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볼 수 있는 高誘注는 일부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北宋의 曾鞏이 『戰國策』보완정리작업을 통해 본래의 三十三卷으로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劉向의 原本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免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후 姚宏이 “曾鞏本”을 근거로 하여 또 한차례 여러 版本들을 대조하여 모순된 부분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현존의 “姚宏本”은 “劉向本”에 가장 근접한 판본으로

- 1) 『戰國策』(劉向書錄)云:所校中『戰國策』書,中書餘卷,錯亂相糅,莠又有國別者八篇,少不足.臣向因國別者,略以時次之,分別不以序者以相補,除復重,得三十三篇.本字多誤脫爲半字,以‘趙’爲‘肖’,以‘齊’爲‘立’,如此字者多.中書本號,或曰“國策”,或曰“國事”,或曰“短長”,或曰“事語”,或曰“長書”,或曰“修書”.臣向以爲戰國時,游士輔所用之國,爲之策謀,宜爲『戰國策』.其事繼春秋以後,訖楚宮·漢之起,二百四十五年間之事皆定,以殺青,書可繕寫.
- 2) 예를들면,期『戰國策』(齊策四,齊有馮嬖者)章과 『史記』(孟嘗君列傳)에 食客 馮嬖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문장은 서로 비슷하나,前者는 초점을 馮嬖에게 두고,後者는 孟嘗君에게 두었다.
- 3) 본문에서 언급한것 외에 대략 다음 세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宋代 呂祖謙의 『大事記』에 의하면 春秋가 끝나는 해인 魯哀公十四年(紀元전481年)부터 시작한다. 둘째, 漢代 司馬 遷 『史記』(六國年表)는 周元王 元年(紀元前475年)부터 시작한다. 셋째, 清代 林春溥의 『戰國紀年』은 周貞王 元年(紀元前468年)부터 시작하고 있다.

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姚宏과 같은 시기에 鮑彪가 본인의 의사대로 “曾鞏本”을 개편하고 새로운 주석을 가해 『戰國策注』 十卷을 새로 편찬하였다. 이후 元나라의 吳師道가 “鮑彪本”을 가지고, 高誘注, 姚宏注, 鮑彪注 등 여러 주석을 參考로 하여 또 다시 『戰國策校注』 十卷을 편찬하였다. 이 “吳師道本”은 편찬후 清代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언제 『戰國策』이 입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同版本을 朝鮮시대에 活字로 펴낸 적이 있다.⁴⁾

이후 清代의 黃丕烈이 “姚宏本”을 재차 校正하여 “吳師道本”과 차이점을 校勘한 후 〈札記〉 三卷을 末尾에 실었는데, 이는 『重刻劔川姚氏本戰國策』이라 칭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열거한 주요 판본들을 중심으로 『戰國策』이 중간에 遺失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게 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二. 本 論

『戰國策』은 劉向이 편찬한 후 그 내용의 일부분이 教化에 맞지 않는다는 연유로 後人들에게 기피당하고 배척당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면서 缺損되고 遺失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版本整理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漢代의 劉向으로부터, 清代 黃丕烈이 정리하기까지, 體制로 보아 크게 “姚宏本”과 “鮑彪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시대 순서에 따라 版本의 주요 정리자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曾鞏의 版本整理

4) 朝鮮시대 活字本은 우리나라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吳師道本”을 肅宗 11년에 戊申字 活字(10行18字)로 펴낸 것이다. 그리고 王重民선생에 의하면 美國 국회도서관에 高麗活字本 『戰國策』이 소장되어 있는데, 10行18字에 표제는 縉雲鮑彪校注, 東陽吳師道重校라 기록되어 있고, 序跋文 十四篇이 합 계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張正男, 『戰國策初探』 p 371 참고) 그러나 이 版本의 체제가 10行 18字등 肅宗시대 활자본과 같은 것으로보아 朝鮮활자본을 高麗활자본으로 잘못 기록한 것 같다.

西漢 劉向에서 宋代 曾鞏에 이르는 사이, 東漢末期에도 高誘가 『戰國策』에注를 단 적이 있다. 그러나 曾鞏에 이르러서는 『戰國策』이 이미 “劉向本” 또는 “高誘注本”을 막론하고 모두 결손되고 유실되어 완전하지가 못하였다. 曾鞏이 이를 정리 하면서 절반가량이나 遺失된 부분을 補完하기 위해 士大夫家를 訪問하여 자료를 얻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새로 『戰國策』三十三卷을 복원하였다.⁵⁾ 다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 그의 序文에는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曾鞏이 정리하기 이전의 『戰國策』에 관한 史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戰國策』三十三篇, 記春秋後.” (『漢書·藝文志』)

“『戰國策』三十二卷, 劉向錄.” (『隋書·經籍志』)

“『戰國策』二十一卷, 高誘注.” (『隋書·經籍志』)

“『戰國策』三十二卷, 劉向撰.” (『舊唐書·經籍志』)

“『戰國策』三十二卷, 高誘注.” (『舊唐書·經籍志』)

“劉向『戰國策』三十二卷.” (『新唐書·藝文志』)

“高誘注『戰國策』三十二卷.” (『新唐書·藝文志』)

이상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漢書·藝文志』에 기록된 것만이 劉向이 최초로 편찬한 『戰國策』三十三篇과 일치하고, 이후부터는 “篇”을 “卷”이라 칭하면서, 卷數 또한 篇數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篇이 卷으로 바뀐 것은 일반적으로 篇은 竹簡을 칭하고, 卷은 帛書를 칭한다고 볼 때에 이는 기록된 書冊의 재료에 의해서 달리 칭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卷數의 차이에 있다.⁶⁾

또한 『隋書·經籍志』를 보면 “『戰國策』二十一卷, 高誘注.”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劉向의 三十三卷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늘날 전해지는 『戰國策』과 비교해 볼 때, “高誘注本”은 “劉向本”의 요약본이 아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각 권의

5) 〈曾鞏重校戰國策序〉云:“劉向所定著『戰國策』三十三篇,『崇文總目』稱十一篇者闕.臣訪之士大夫家,始盡得其書,正其誤謬,而疑其不可考者,然後『戰國策』三十三篇復完.”

6) 姚宏의 〈題戰國策〉과 姚寬의 〈戰國策後書〉에 모두 “戰國策,隋經籍志,三十四卷.”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隋書·經籍志』에서 언급한 三十二卷과 상이한 점이다. 그러나 『新·舊唐書』에서도 三十二卷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三十二卷이 맞다고 본다. 한편, 당시 三十四卷本이 유행되었을 수도 있다. 宋 鄭樵의 『通志』에도 “戰國策三十四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卷數가 감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新·舊唐書』에 의하면 다시 三十二卷의 “高誘注本”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隋書·經籍志』의 二十一卷本과 『唐書』의 三十二卷本 즉, 두 가지의 다른 “高誘注本”이 유통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劉向의 三十三卷本까지 합하면 크게 세 종류의 『戰國策』판본이 曾鞏 이전에 전래되어 유통되었고, 系統上으로는 “劉向本”과 “高誘注本” 양대계통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版本들이 宋代 曾鞏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이 遺失되었는데 이에 대해 宋代 王堯臣등이 撰한 『崇文總目』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劉向本) 篇卷의 결손된 부분은 제2권에서 10권, 제31권에서 33권이다; 이밖에 後漢 高誘注本 二十卷은 오늘날 제1권, 제5권, 그리고 제11권에서 20권까지 결손되어 단 지 8권만 남아있을 뿐이다.”

(今篇卷亡闕第二至十,三十一至三闕;又有後漢高誘注本二十卷,今闕第一,第五,十一至二十,止存八卷.)⁷⁾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시대 이미 “劉向本” 三十三篇중 十二篇이 유실되어 二十一篇만 남았고, “高誘注本” 二十卷(二十一卷)도 十二篇(十三篇)이 유실되어 八篇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誘注 三十二卷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실되었는지 『崇文總目』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曾鞏重校戰國策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戰國策)은 高誘注本 二十一篇이 있는데, 혹자는 三十二篇이라고도 한다. 『崇文總目』에서는 八篇이 남아있다고 언급하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十篇이다.”

(此書有高誘注者二十一篇,或曰三十二篇.『崇文總目』存者八篇,今存者十篇云.)

7) 이곳에서 “高誘注本二十卷”이라 한 것과, 末尾의 “至二十”의 二十은 〈隋志〉, 〈曾鞏序〉, 〈姚宏題〉등 모두 二十一卷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때 二十一卷이 맞다고 본다.

이는 바로 “高誘注本”이 두 종류인 것을 시사하면서, 曾鞏 자신이 입수한 것은 “殘存本”으로 十篇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종류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鄭良樹 선생은 그의 저서 『戰國策研究』에서 “八篇”은 二十一卷本에 대한 것이며, “今存者十卷”은 三十二卷本에 대한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밖에 〈曾鞏重校戰國策序〉 첫 부분에 “劉向所定著『戰國策』三十三篇, 『崇文總目』稱十一篇者,闕.”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鄭선생이 여기서 “稱十一篇者,闕.”을 “稱二十一篇者,闕.”의 오류로 간주하는 것은 문맥상 타당성이 있으나 불확실한 부분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戰國策』三十三卷을 분석해 볼 때, 高誘注가 있는 卷數는 제2권, 제3권, 제4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23권, 제25권, 제30권, 제32권, 제33권 등 모두 13권이며, 나머지 20권은 高誘注가 없다. 그러므로 『崇文總目』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曾鞏이 『戰國策』三十三卷을 “復完”하면서 士大夫들을 방문하여 유실된 부분을 보충한 부분은, “劉向本” 제5권과 제31권, “高誘注本” 제23권, 제25권, 제30권, 제32권과 제33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高誘注本” 제23권, 제25권, 제30권 등 세 권은 “劉向本”과 중복되나,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주석이 있는 “高誘注本”을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이 三卷에 대한 高誘注는 曾鞏이 보충한 부분이 아니고 후대에 보충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高誘注本” 제23권, 제25권, 제30권은 曾鞏이 당시 사대부들에게서 자료를 얻어 보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姚宏의 版本整理

曾鞏이 『戰國策』을 정리하여 “復完”한지 약 一百年후, 南宋 高宗 紹興 十六年(西紀 1146年), 剡川의 姚宏이 새로이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판본을 근거로 하여, 『高誘注戰國策』 판본에 대한 整理 및 통일작업을 이룩함으로써, “劉向本”과 가장 근접한 珍貴本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 와서 기타 판본들은 도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로는 清代 黃丕烈的『重刻刻川姚氏本』(士禮居本)이 간행되면서, 姚宏의『戰國策』정리업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와 이 이전까지는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하여 널리 전파되거나 보급되지 못하였던것 같다. 그 근거로는『宋史·藝文志』에『鮑彪注十卷』이란 기록만 나와 있지, “姚宏本”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⁸⁾

이 밖에 元代에 “鮑彪本”을 補正한 吳師道가 처음으로 “姚宏本”을 발견하고서 쓴〈吳師道姚序跋〉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鮑彪戰國策注를 분석하고 바로 잡으면서, 呂祖謙의『大事記』가 刻川 姚宏의 글을 인용한 것을 읽고서, 그도 同書에 注를 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세 여러 학자들의 書錄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기록하고 있지 않았으며, 세간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予辨正鮑彪『戰國策注』,讀呂子『大事記』引刻川姚宏,知其亦注是書.考近時諸家書錄皆不載,則世罕有蓄者.)

그러므로 “姚宏本”이 통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드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吳師道 역시 “鮑彪本”을 補正하기 위해 여러 版本들을 참고하던 중 呂祖謙의『大事記』를 통해서 간접으로 알게된 것이다.

“姚宏本”이 통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첫째, “鮑彪本”이 바로 “姚宏本”이 완성된 紹興 丙寅年の 다음해인 丁卯年에 완성됨으로써 두 사람의 책이 거의 동시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兩者를 비교해 볼 때 표면적으로 “鮑彪本”이 새로운 體制로 엮어 일목요연하고 주석이 상세하여 일반인들에게 비

8) 尤무의『遂初堂書目』에 “姚氏本『戰國策』”이라고 여섯자만 기록되어 있지 鄭樵의『通志』, 王堯臣의『崇文總目』, 陳振孫의『直齋書錄解題』, 王應麟의『玉海』등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元·明시대의 목록인 馬端臨의『文獻通考』, 張萱의『內閣藏書目錄』, 陳第의『世善堂藏書目錄』, 등에서 “姚宏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清代 錢謙益의『絳雲樓書目』, 錢曾의『述古堂書目』·『讀書敏求記』, 瞿鏞의『鐵琴銅劍樓藏書目』, 孫星衍의『孫氏祠堂書目』·『平津館鑒藏記書籍』등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姚宏本”이 유행되지 못했음을 단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9) 鄭良樹, 『戰國策研究』(臺北, 學生書局, 1986), p 43-45 참조

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元代에 들어와 吳師道가 “鮑彪本”에 대해 새로이 補正함으로써, 좀더 상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姚宏本”은 다음 몇 가지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劉向本”과 가장 近似한 版本으로 인정받고 있다. 첫째, 본래 劉向이 편찬한 三十三卷本の 面貌를 갖추고 있다. 둘째, 최대한 『戰國策』 原本의 文字들을 개정하지 않고 원형대로 수록하면서 주석문과 교정문만 추가시켰다. 셋째, 『戰國策』 原本의 결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넷째, 南宋初年 십여종의 『戰國策』 판본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다.⁹⁾ 이러한 결과는 모두 조심스럽고, 엄격하며, 보수적인 정신으로 『戰國策』 판본을 정리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北宋시대의 曾鞏이 『戰國策』 판본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본 것과 같이, 姚宏이 어떠한 版本들을 활용하여 『戰國策』을 정리하였는지 중요한 몇 가지 판본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1) 曾鞏本

姚宏은 〈題戰國策〉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옛 판본중 曾南豐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錯誤가 심하여 읽을 수가 없다. 南豐의 교정본은 오늘날 널리 통행되는 판본이다. 장안의 建陽刻本은 모두 曾鞏本을 최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또한 장단점이 있다.”

(舊本有未經曾南豐校定者,舛誤尤不可讀.南豐所校,乃今所行.都下建陽刻本,皆祖南豐,互有失得.)

이를테면 “曾鞏本”은 당시 널리 통행되던 主要 版本으로써 姚宏이 참고로 한 주요 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통용되던 수많은 판본을 연구분석하여 취합·정리하던 입장에서 볼 때, 曾鞏本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互有失得”이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曾鞏本”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北宋시대에 여러 판본들이 모두 유실되고 결손

10) 張正男선생은 『戰國策初探』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存只有題名姚宏的續高誘注本,沒有姚寬的所謂‘集注’本.吳師道以爲姚氏兄弟都嘗用意此書,黃丕烈以爲‘伯聲所撰,令威曾書之’黃說可從.”

된 가운데, 제일먼저 완전치 못한 『戰國策』판본들을 정리하여 三十三篇으로 모두 보완하였다. 둘째, 曾鞏 스스로 校正 내용과 설명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의심나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겨 놓았다.(正其誤謬,而疑其不可考者.)

(2) 錢藻本

姚宏〈題戰國策〉에는 同 판본이 나와있지 않고, 姚寬의 〈戰國策後序〉에만 언급되어 있으나,¹⁰⁾ 姚宏이 同版本을 참고하였음은 그의 校注를 읽어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錢藻本은 완전한 책이 아닌 缺損本이며, 또한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3) 劉敞本

『戰國策』卷三十 끝부분의 姚宏注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劉原父所傳本至三十卷而止.” 이를 볼 때 “劉敞本”은 南宋初까지 三十卷만 전해지고 뒤의 三卷은 遺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孫朴〈戰國策後書〉에 아래와 같은 劉原父의 인용문이 기록되어 있다. “劉原父가 이르기를: 내 생전에 완전한 전국책본을 얻어 올바로 교정해야 되지 않겠는가?(劉原父云: 吾老當得定本正之否邪?)”

(4) 集賢院本

이는 集賢院에서 刊行한 판본으로 孫朴은 “가장 유실이 많다.(最脫漏)”고 하였다. 그러나 姚宏의 교정에 “集作某”라고 언급된 것은 곧 “集賢院本”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姚宏本” 이전의 “孫朴本”에서 이미 “集賢院本”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孫朴〈書閣本戰國策後〉에 “八年,再用諸本及集賢院新本校,又得一百九十六字.”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集賢院本”은 新·舊 두 개의 판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曾鞏本”, “錢藻本”, “劉敞本”, “集賢院本” 등 4개 판본은 姚宏이 『戰國策』을 정리할 때 사용한 여러 판본중에서도 중요한 판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姚宏의 校語中 자주 등장하는 “四本同”, “四同” 등은 이상 4개 版本들을 지칭하는 것들이다.

3. 鮑彪의 版本整理

鮑彪는 劉向의 『戰國策』을 참고로 하여 目次를 정하고 文章도 아울러 修飾하여

南宋 高宗 紹興十七年(西紀 1147年)에 『戰國策十卷』을 편찬하였다. 鮑彪의 정리는 『戰國策』의 문장을 다듬었을 뿐 아니라, 國家별・君主별로 목록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마치 국가별 正史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史料를 정리하여 古代史를 새로 편찬한 功績은 정받을만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鮑彪本”이 刊行되면서부터 世人의 注目을 받게 되었고 또한 널리 流行되었다. 그러나 판본원류를 따져보면, 이는 劉向의 체제를 무시하고 “曾鞏本”의 의문되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劉向本”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그리고 “姚宏本”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점으로 보아 “姚宏本”은 입수하지 못하여 참고하지 못한 것 같다.

鮑彪가 판본을 새로 정리・편찬하면서 상당히 노력했음은 그의 〈戰國策注序〉를 보면 알 수 있다:

“彪는 『戰國策』을 교정하면서, 네번이나 수정하여 정리한 후에 탈고하였다. 하지만 紹興十九年(西紀 1149년)봄에 또다시 교정을 보았다.”

(彪校此書,四易稿而後繕寫,己巳仲春重校.)

이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과 비교적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하고 수정하여 본래의 모습은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후인들의 비평을 받고 있는데 吳師道는 〈戰國策校注序〉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서로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적으로 『史記』만을 근거하여 주로 그 내용을 중시하였다. 둘째, 본문을 삭제하거나 또는 文字를 고침으로써 주석의 도를 넘어섰다. 셋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두던가 또는 疑問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을 강제로 解釋하였다. 넷째, 西周를 正統적인 天子의 나라로 誤認하여, 卷頭에 『戰國策』의 첫번째 국가인 東周를 西周로 바꾸어 놓았다.

이 밖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거나 인물을 평하는 데 있어, 君主의 時代 先後를 잘못 알거나, 또는 地名을 人名으로 착각하고, 張儀・蘇代 등 인물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義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인용서적에 있어 『淮南子』, 『後漢書』, 『說文』, 『集韻』 등의 내용을 많이 채택하고 原文의 타당성 여

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史記』의 『索隱』, 『正義』 및 『通鑑』등을 인용하지 않았다.¹¹⁾

다음은 鮑彪가 “曾鞏本” 『戰國策』을 참고하고 『史記』를 근거로 하여 새로이 각章을 시대별로 나누어 각국의 君主와 諸侯의 先後에 따라 『戰國策』을 十卷으로 分類한 내용이다:

〈卷一〉西周: 安王一章, 난王十八章.(19)

〈卷二〉東周: 惠公二十六章.(26)

〈卷三〉秦: 孝公一章, 惠文君十四章, 武王十六章, 昭襄王三十二章, 孝文王一章, 莊襄王 無, 始皇帝四章.(68)

〈卷四〉齊: 威王六章, 宣王十四章, 閔王二十七章, 襄王六章, 王建六章.(59)

〈卷五〉楚: 宣王十一章, 威王四章, 懷王二十六章, 頃襄王七章, 考烈王八章.(56)

〈卷六〉趙: 襄子四章, 烈侯一章, 肅侯二章, 武靈王十二章, 惠文王十四章, 孝成王二十七章, 悼襄王一章, 幽王二章.(63)

〈卷七〉魏: 桓子一章, 文侯五章, 武侯一章, 惠王九章, 襄王十章, 哀王二十四章, 昭王十五章, 安釐王二十二章, 景閔王二章.(89)

〈卷八〉韓: 康子一章, 烈侯一章, 昭侯四章, 宣惠王五章, 襄王三十二章, 釐王十六章, 桓惠王一章.(60)

〈卷九〉燕: 文公三章, 易王二章, 王_口會六章, 昭王十五章, 惠王二章, 王喜三章.(31)

〈卷十〉宋: 景公四章, 剔成一章, 君偃一章.(9)

衛: 靈公一章, 悼公三章, 嗣君五章.(9)

中山: 君侯의 구분없이 九章.(9)

이상 모두 十卷, 十二國, 五十七王侯, 四百九十五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史記·六國表』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나, 周나라의 세 王, 趙와 韓나라의 각각 다섯 君主가 누락되었다. 이 밖에 燕·衛·宋의 순서가 올바르지 못하며, 秦襄王의 내용이 누락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國別史를 編纂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배열이 비교적 일목요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鮑彪가 『戰國策注』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새로운 편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1) 〈吳師道戰國策校注序〉 참조

4. 吳師道の 版本整理

吳師道の『戰國策校注』는 序文에 의하면 泰定二年乙丑(西紀 1325年)에 완성하고, 至順四年癸酉(西紀 1333年)에 “姚宏本”을 입수한 후, 별도로 <識>을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鮑彪本” 『戰國策』을 補正할 때 “姚宏本”을 원본으로 하지 않았지만 “姚宏本”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

吳師道는 鮑彪本の 新注를 근거로 補正하였는데, 補는 누락된 것을 보완한 것이고, 正은 잘못된 착오를 올바르게 잡은 것을 말한다. 吳代氏는 한편 鮑彪가 原本의 면모를 훼손시킨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曾鞏本”의 目錄(三十三卷,四百八十六章)을 책머리에 삽입하여 “鮑彪本”의 목록과 대조할 수 있게끔 하여 “劉向本” 체계와의 차이점을 독자로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吳師道の “補正” 내용을 보면 古本의 면모를 회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며, “鮑彪本”의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여 바로 잡았다. 그리고 간혹 姚宏의 注를 근거로 삼기도 하였으며, 개인의견으로 글자를 고친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吳師道는 “鮑彪本”을 원본으로 “姚宏本” 및 『大事記』를 참고하여 『戰國策』을 校正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吳師道는 실로 “鮑彪本”의 소홀한 부분들을 상세히 增補시키고, 잘못된 부분들을 訂正하였다. 이로 인해 “鮑彪本”이 더욱 완벽하게 되었으며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정리본이 된 것이다.

吳師道가 “鮑彪本”을 근거로 하여 補正을 하였으나, “옛 것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고, 학문의 자세는 의심나는 문제를 남겨두는 것이 옳바르다.(事莫大於存古, 學莫善於闕疑)”¹²⁾ 고 한 것으로 보아, 한편으론 나름대로 옛 모습을 후세에 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鮑彪注를 사용하되, 姚宏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고, 의심스러운 곳은 『大事記』를 대조해 확인하였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존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다.”

(輒因鮑注,正以姚本,參之諸書,而質之『大事記』,存其是而正其非.)¹³⁾

12) 註 11과 같음

13) 註 11과 같음

그러므로 “吳師道校注本”이 『大事記』의 자료를 자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에 『大事記』를 통해서 “姚宏本”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大事記』에 대한것을 먼저 기록했고, 다음에姚宏의 자료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姚宏의 자료를 간접으로 『大事記』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姚宏本”을 입수한 후에는 직접 “姚宏本”에서 인용하였다.

이 밖에 吳師道가 참고한 여러 서적 및 참고자료는 『戰國策高誘注』, 『史記』, 『史記正義』, 『史記索隱』, 『禮記注疏』, 『左傳杜預集解』, 『孟子注』, 『韓非子』, 『列女傳』, 『水經』, 『括地志』, 『容齋隨筆』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黃丕烈的 版本整理

黃丕烈은 淸 嘉慶年間의 가장 유명한 藏書家로서 宋代의 刻本도 一百餘種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가 펴낸 『士禮居叢書』도 후대 장서가들이 아끼는 책들이 되었다.

黃丕烈은 宋나라 때 간행된 “姚宏續校高誘注本”을 근거로 嘉慶癸亥年(西紀 1803年)에 『重刻刻川姚氏本戰國策(士禮居本戰國策)』을 간행하였으며, 말미에 그의 저술인 〈札記三卷〉을 추가하였다. 또한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顧廣圻序文〉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姚宏本을 근거로하여 오늘날 통행되는 판본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였으나 이는 吳氏本을 가지고姚宏의 校注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첨가함으로써, 두 사람의 미비한 점을 또한번 보충한 셈이 되었다. 이 밖에 읽을 수 없는 부분을 다소 읽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후세에 『戰國策』을 읽을 때 이 책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雖主於據姚本訂今本之失,而取吳校以益姚校之未備,所下己意,又足以益二家之未備也.凡於不可讀者,已稍稍通之矣.後世欲讀戰國策,舍此本其何由哉!)

이를 볼 때 “黃丕烈本”은 “姚宏本”을 근거로 하고 “吳師道本”을 참고하여 〈札記三卷〉을 책 末尾에 추가하였는데, 이 새로운 『戰國策』판본은 다른 판본들보다 우수함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札記三卷〉이 전체 본문과 분리, 독립되어 있음으로 해서 독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三. 結論

중국의 역사에 있어 학술적으로 가장 꽃 피웠던 春秋戰國時代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대표적인 책으로는 『左傳』, 『國語』, 『戰國策』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중 『左傳』과 『國語』는 春秋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戰國시대를 기록한 것으로는 『戰國策』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당시 열국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游士들의 활동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行動과 言談 중에는 教化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후대 사대부들의 비평을 받아 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春秋 이후 秦漢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서, 결코 廢할 수 없다는 평가를 들어왔다.¹⁴⁾

이러한 『戰國策』은 西漢 劉向이 최초로 편찬한 이후, 後漢末 高誘가 “劉向本”에 주석을 첨가한 적이 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劉向本”과 “高誘注本”은 모두 遺失을免치 못하였다. 『崇文總目』에 의하면 “劉向本”은 三十三卷 중 二十一卷만이, “高誘注”는 二十一卷 중 八卷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戰國策』판본에 대한 整理사업은 宋代에 들어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첫번째로는 北宋의 曾鞏이 당시 殘存되어 있는 『戰國策』을 두 계통의 3가지 판본(劉向三十三卷本, 高誘注二十一卷本 및 三十二卷本)을 근거로하고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戰國策』三十三篇을 “復完”한 점이다. 이 당시 어느 정도까지 “劉向本”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曾鞏本”이 현존 “今行本”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南宋에 이르러 姚宏과 鮑彪가 『戰國策』판본을 새로 정리하였는데 前者는 당시 주요 판본인 “曾鞏本”, “錢藻本”, “劉敞本”, “孫朴本”, “集賢院本” 등을 참고하여 “劉向本”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 하였고, 後者는 새로운 目次, 편집 및 문장정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戰國策』판본을 간행했으나, 판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개인의 독자적인 의도대로 개편하여 원본

14) 〈劉向戰國策書錄〉云:“皆高才秀士,度時君之所能行,出奇策異智,轉危爲安,運亡爲存,亦可喜,皆可觀。”

〈曾鞏重校戰國策序〉云:“至於此書之作,則上繼春秋,下至秦漢之起,二百四十年之間,載其行事,固不得而廢也。”

의 모습을 더욱 소멸시켰다는 책망을 면치 못하고 있다.

曾鞏 이후 판본은 “姚宏本”과 “鮑彪本”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元의 吳師道가 “鮑彪本”계통의 “吳師道本”인 『戰國策校注』十卷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元・明・清代에는 주로 “鮑彪本”과 “吳師道本”이 통행되다가 다시금 清代의 黃丕烈이 “姚宏本”계통인 『重刻剡川姚氏本戰國策』을 간행하여, 그동안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劉向本”계통의 “姚宏本”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시중에 통용되는 『戰國策』판본들은 앞에서 언급한 판본들 외에, 주로 “姚宏本”을 근거로 하여 各家의 주석과 해설을 취합한 간행본이 대부분이다.

한편 西紀 1973年 겨울에서 1974年 봄 사이, 考古學者들에 의해 중국의 湖南 長沙, 馬王堆三號漢墓 속에서 대량의 “帛書”가 발굴되었는데, 이중 原始本 『戰國策』자료가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全文이 약 1만 7천여자로 二十七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오늘날 전해지는 『戰國策』, 『史記』의 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문장은 모두 十一章으로서, 전체 분량의 약五分의 二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十六章은 현재까지 다른 文獻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다. 이 『帛書戰國策』은 考證에 의하면 紀元前 168년에 매장된 것으로 劉向이 편집한 『戰國策』과 司馬遷의 『史記』보다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볼 때, 『戰國策』판본연구에 대한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는 학자들에 의해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유실된 문장들을 찾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 晉·杜預注, 唐·孔穎達疏『春秋左傳正義』臺北, 藝文印書館, 1981
 周·左丘明撰『國語』臺北, 漢京文化事業公司, 1983
 漢·司馬遷撰, 宋·裴駟集解, 唐·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史記集解』
 臺北, 藝文印書館
 漢·班固撰, 唐·顏師古注, 清·王先謙補注『漢書補注』臺北, 藝文印書館
 唐·魏徵等撰『隋書』臺北, 鼎文書局, 1980
 後晉·劉昫等撰『舊唐書』臺北, 鼎文書局, 1979
 宋·歐陽修, 宋祁等撰『新唐書』臺北, 鼎文書局, 1979
 元·脫脫等撰『宋史』臺北, 鼎文書局, 1980
 宋·王堯臣等撰『崇文總目』臺北,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
 元·馬端臨撰『文獻通考』臺北, 新文豐出版社, 1986
 清·紀 等撰『四庫全書總目提要』臺北, 商務印書館, 1985
 河洛出版社編輯部『帛書戰國策』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7
 諸祖耿撰『戰國策集注彙考』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5
 漢·高誘注『戰國策』臺北, 藝文印書館士禮居叢書
 宋·鮑彪注『戰國策』臺北, 商務印書館四庫珍本六集
 元·吳師道撰『戰國策校注』臺北, 藝文印書館惜陰軒叢書
 郭希汾輯註『戰國策詳註』臺北, 惠文出版社, 1972
 西漢·劉向集錄『戰國策』臺北, 里仁書局, 1990
 張清常, 王延棟『戰國策箋注』北京, 南開大學出版社, 1993
 鄭良樹著『戰國策研究』臺北, 學生書局, 1986
 張正男著『戰國策初探』臺北, 商務印書館, 1984
 楊寬著『戰國史』臺北, 谷風出版社, 1986
 繆文遠著『戰國策考辨』北京, 中華書局, 1984
 漢·趙岐注『孟子正義』臺北, 藝文印書館, 1981
 漢·許慎撰, 清·段玉裁注『說文解字』臺北, 藝文印書館, 1979

Abstract

“A Study of Editions on Chan-Kuo-Tse”

Kim, Jong-Sung

『戰國策』版本敘錄提要

『戰國策』是中國文學先秦史傳散文中一部文學性高的典籍。觀其文字表現技巧，則敘述生動，氣勢縱橫，引人入勝，富有高度的文學藝術性；其體裁則兼有議論與記傳體形式，為後代中國敘文學樹立了楷模。

除此之外，『戰國策』是記載戰國歷史最生動具體的一部典籍。其內容則包括東周、西周、秦、齊、楚、趙、魏、韓、燕、宋、衛、中山等十二國的時事，是當時的游士奔走各國互相辯論出來的政治主張與為所用之國的策謀。其中展現出國際間複雜敵對的情勢。

『戰國策』的材料，由不同的作者，在不同的時代與地點，用不同的觀點寫成的。所以並不是一人所寫或一人所作。其直到西漢劉向才將其資料從宮中秘閣蒐集整理後編輯成書。然而最初有關『戰國策』的書名解釋與編定經過，劉向在〈戰國策書錄〉中云：

所校中『戰國策』書，中書餘卷，錯亂相舛。又有國別者八篇，少不足。臣向因國別者，略以時次之，分別不以序者以相補，除復重，得三十三篇。本字多誤脫為半字，以‘趙’為‘肖’，以‘齊’為‘立’，如此字者多。中書本號，或曰“國策”，或曰“國事”，或曰“短長”，或曰“事語”，或曰“長書”，或曰“修書”。臣向以為戰國時，游士輔所用之國，為之策謀，宜為『戰國策』。其事繼春秋以後，訖楚·漢之起，二百四十五年間之事皆定，以殺青，書可繕寫。

可知劉向編定『戰國策』時，參考引用之宮中藏書資料原來的名號，與其文字上有所錯誤的情形，又對內容與時間上的大略界限，還有題定書名的原由等。

如此經過劉向編定『戰國策』以後，到東漢末年高誘則加以注解。但是到北宋，『戰國策』卷本散失的情況非常嚴重。根據『崇文總目』則云：

今篇卷亡闕第二至十，三十一至三闕；又有後漢高誘注本二十卷，今闕第一，

第五,十一至二十,止存八卷。

可見無論“劉向本”或“高誘注本”皆有所缺,因此,曾鞏則根據兩個源流的三種版本(劉向三十三卷本,高誘注二十一卷本及三十二卷本),再“訪之士大夫家”取得相關資料後,重新“復完”『戰國策』三十三卷。

後來到南宋高宗紹興十六年(公元1146年)和十七年(公元1147年),姚宏與鮑彪各自根據“曾鞏本”並蒐集當時流行的許多版本,重新整理出『戰國策』。而姚宏則根據“曾鞏本”,“錢藻本”,“劉敞本”,“集賢院本”等資料,又作了一次空前的大整理,由於姚宏的整理,可以說是完成了高注『戰國策』版本的統一作業,也就盡量整理恢復了“劉向本”的原貌。鮑彪則不但把『戰國策』重新排列次序,並且修飾文字,而且分國序時,照各國君侯先後,重新編輯成冊,其體制嚴然如“正史”。然而站在版本學的立場論,則不免改變古本原貌之責。故四庫全書總目鮑氏戰國策注十卷內府藏本提要云:“其篇次先後,則自以己意改移,非復向。鞏之舊,是書竄亂古本,實自彪始。”後來,到元代吳師道用“鮑彪本”加以整理“補正”以後,其注解則更加豐富完整,故元·明·清時代“鮑彪本”系統版本流行一時,而“吳師道本”曾經在韓國朝鮮肅宗年代,以活字本刊行於世。

到清代黃丕烈則又根據“姚宏本”,再彙集前人的各種版本,加上已見,刊出『重刻剡川姚氏本戰國策』。其不但模倣宋版,另外還有其個人研究成果的〈札記三卷〉附於冊末,此本則成爲最珍貴,最近似“劉向本”的『戰國策』。顧廣圻在序文中亦云:

雖主於據姚本訂今本之失,而取吳校以益姚校之未備,所下己意,又足以益
二家之未備也。凡於不可讀者,已稍稍通之矣。後世欲讀戰國策,舍此本其何
由哉!

因此“今行本”則多根據此本刊行。可見『戰國策』版本經過歷代整理者的不斷整理,其本來面貌大致再現。